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김윤정¹, 강현정^{2*}

¹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²한서대학교 다문화교육복지연구소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Baby Boomers' Social Activity Type

Yun-Jeong Kim¹ and Hyun-Jung Kang^{2*}

¹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²Multicultural Education and Welfare Center,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유형 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남녀 베이비부머 1,115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1년 8-10월에 성별과 지역에 따른 할당표본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유형은 3집단으로 나타났다. 36.8%가 속한 소극적 사회참여형은 소득활동이나 시민단체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종교활동이나 가정내 활동을 하는 경우는 소수가 포함되었다. 주로 여성이 많고 후기베이비부머가 많고, 학력수준이나 가정소득이 다른 군집에 비해 낮으며 삶의 만족도 중간정도이다. 둘째, 33.8%가 속한 활동적 사회참여형은 소득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여성이 많고 후기베이비부머가 많다는 점은 소극적 사회참여형과 유사하나 학력이나 가정 내 월평균 소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가장 높다. 셋째, 29.4%가 속한 경제활동 중심형은 소득활동에는 참여하지만 문화활동,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 혼자 시간보내기 등의 사회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전기와 후기베이비부머의 분포나 학력의 분포, 가정내 월소득은 다른 군집의 중간 수준이지만, 다른 군집과는 달리 남성이 많고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장 낮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y social activity type in baby boomers. Sampling 1,115 baby boomers, gender and region were assign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August to October in 2011. As a result of research, first, the typology of social activity in baby boomers includes 3 groups. The passive social-participation type is the cluster to which 36.8% of the baby boomers belong. They do not join income activity or civic-group activity at all. A case of doing religious activity or family activity includes a minority. There are primarily lots of women and posteriori baby boomers. Academic background level or household income is lower compared to other clusters. The life satisfaction level is moderate. Second, the active social-participation type is the cluster to which 33.8% of the baby boomers belong. They are positive in all the social activities including income activity. What there are lots of women and posteriori baby boomers is similar to the passive social-participation type. However, the academic background or the averagely monthly household income is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clusters. Eve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is the highest. Third, the economic activity orientation type is the cluster to which 29.4% of the baby boomers belong. They participate in income activity, but don't participate in civic-group activity, educational activity, and social activity such as spending time alone. Distribution of priori-and-posteriori baby boomers, distribution of academic background, or monthly household income is moderate level of other clusters. However, unlike other clusters, there are many me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is the lowest.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are suggested ways to improve in life satisfaction by social activity type in baby boomers.

Key Words : Two-step cluster analysis, Baby boomer, Social participation, Life satisfaction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8-B00025)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Kang(Hanseo Univ.)

Tel: +82-41-660-1627 email: hj-cs@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8, 2012

Revised (1st January 11, 2013 2nd January 18,2013)

Accepted March 7, 2013

1. 서론

베이비붐은 전쟁, 경제공황 등 사회혼란이나 불안요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져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었다가 그 원인이 해소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1]으로,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베이비부머라 한다[2].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단카이세대라 불리며, 1946년에서 1949년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통용되며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3].

이 대규모 인구집단의 은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회적 관심이었다. 이에 미국은 고령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노년층이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베이비부머의 대거 퇴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보았고, 일본의 경우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고용문제에 대응하고 있다[4]. 베이비부머의 고용문제나 경제활동만큼 미국과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 프로그램은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길어진 노후를 성공적으로 지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는 노년기에도 중년기와 똑같은 심리·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와 같은 욕구를 유지할 때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년기의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Rohr와 Lang[5]은 사회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과정이라 바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립 창의적 노화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를 운영하고, 친노화(Aging friendly)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4]. 일본의 경우도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단카이 세대가 쉽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6].

한국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본격화되었고, 이들의 은퇴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우려는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사회적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이들의 노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관련 연구가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수 발표되었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베이비부머의 근로관련 연구[7,11-22], 재무관련 연구[23-27]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만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활동은 상당히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Kim과 Lee[28]는 종교활동, 여가활동, 공공단체, 연고집단으로 사회활동을 구분하였으며, Kim과 Kim[29]은 건강차원, 취미차원, 교양차원, 정보차원으로 나누어 여가활동을 구분하였고, Kim과 Kim[30]는 소양교육활동, 소일거리활동, 사교활동으로 여가활동을 정의하였다. Shin과 Choi[31]는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으로, Yang[32]은 종교활동, 친목모임,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순수여가활동 정치단체활동, 연고집단활동으로 사회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몇 편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Ju[33]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사회참여를 살펴보고, Byon등은[34]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Kim[35]은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사회참여가 아닌 노후사회참여욕구에 중점을 두었고, Kang[36]은 베이비부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몇 편의 연구 외에도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이 있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나(대표적으로 [28-32]) 이 연구들은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 선행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에 집중된 상황에서 소수 발표된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연구는 사회활동 중 한 가지 차원에 연구의 초점을 둬서 사회활동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년의 활동이 노후로 이어지며, 노후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노후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더 나아가 어떠한 유형의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즉, 사회활동은 앞서 설명한 대로 다차원적 개념이나, 연구자마다 사회활동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활동 변수들의 상호 관련된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어떤 유형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되며 더불어

어 베이비부머의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는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베이비부머가 포함되며, 또한 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참여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차이가 나는가? 셋째, 사회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나는가?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전국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현재 사회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시 단위), 농촌(군 단위)에 거주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시 성별과 지역을 할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500부, 중소도시 400부, 농촌 300부로 할당하였고, 대도시의 경우 남녀 각 250부, 중소도시는 남녀 각 200부, 농촌은 남녀 각150부씩을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H대학교 재학 중인 사회복지계열 학생과 석·박사과정 학생, 각 지역의 거주 공무원을 조사원으로 하여, 사전에 본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대면설문조사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30일부터 2011년 10월20일까지 약 두 달간으로, 총 1,200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베이비부머의 연령이 맞지 않은 경우 등 자료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남자 531명(47.9%), 여자 578명(52.1%) 총 1,115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삶의 만족감

삶의 만족감은 Diner등[37]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나는 현재의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었다”, “자녀들과도 원만하며 행복한 관계이다”, “이웃 및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Cronbach’s=0.784 이다.

2.2.2 사회활동 참여 여부

사회활동 참여 관련 변수는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사회활동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통해 ‘소득활동, 자원봉사, 종교활동, 친목활동(향우회·동우회·계모임·노인정 등), 문화/스포츠활동, 시민단체활동(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등), 교육(배움)활동, 가정 내 활동’중에 각각 참여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2.2.3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출생연도, 혼인상태, 학력, 거주지, 건강상태, 가정의 월 소득을 측정하였다.

2.3 연구대상의 특징

본 연구의 베이비부머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다소 많은 52.1%가 포함되어 있다. 출생연도는 1955-1959년 출생자 39.6%, 1960-1963년 출생자 60.4% 분포되어 있어 후기 베이비부머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배우자가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전체의 절반정도인 48.8%이나 대졸 이상도 38.4%로 학력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는 표집과정에서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지역과 군지역, 서울 및 광역시 거주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건강상태를 ‘중’으로 인지하는 베이비부머가 전체의 59.5%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 소득은 평균 501.78만원으로 [38]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베이비부머의 평균 386만원, [3]의 423.4만원 보다 가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Number	%	M (S.D)
Gender (n=1109)	Male	531	47.9	
	Female	578	52.1	
Birth year (n=1115)	1955-1959	441	39.6	52.08 (2.51)
	1960-1963	674	60.4	
Marital Status (n=1109)	With spouse	1027	92.6	
	Without spouse	82	7.4	
Academic background (n=1115)	Below High School	143	12.8	
	High School Graduate	544	48.8	
	College Graduate and Above	428	38.4	
Residential Area (n=1111)	Metropolitan	321	28.9	
	Si	409	36.8	
	Gun	381	34.3	

Health Condition (n=1088)	Bad	88	8.1	
	Normal	647	59.5	
	Good	353	32.4	
Living Standard (n=1115)	Less than 3 million won	394	35.3	501.78 (724.28)
	3-5 million won	401	36.0	
	More than 5 million won	320	28.7	

2.4 분석방법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을 유형화 하였다. 둘째, 유형화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유형화

베이비부머의 현재 사회참여활동의 집단별 유형화를 하기 위해 전체 1,115명의 베이비부머 중에서 단 현재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을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115명 모두 군집으로 조합되었다 [Table 2, Fig 1]. 군집을 3개, 4개, 5개의 군집으로 모두 분석해 보았으나, 4개, 5개로 나누기 위한 군집분석은 특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사용할 수가 없었고, 3개의 군집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사회참여 활동 유형에 특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샘플수도 순차적으로 차례를 나타내면서 분리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소득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는 전혀 없고,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가정 내 활동 등을 하는 베이비부머는 6.6%에서 37.2% 정도 포함된 군집이다. 따라서 이 군집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혼자시간을 보내거나 가정내 활동, 종교활동 등 혼자서 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군집은 ‘소극적 사회활동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소극적 사회참여형에는 전체 베이비부머의 36.8%가 해당되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가 속한 군집이다. 물론 혼자시간을 보내는 베이비부머도 90% 이상이 속해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민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교육활동 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특성을 보이는 군집으로 ‘활동적 사회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활동적 사회참여형에는 전체 베이비부머 중 33.8%가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집은 소득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이 속한 군집이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574명중 57.1%가 세 번째 군집에 포함될 정도로 이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소득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많이 속해 있다. 반면 자원봉사나 시민단체활동, 교육, 혼자시간보내기 등의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단지 종교활동이나 문화활동, 가정 내 활동 등 소득활동과 병행이 가능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성을 보이는 군집으로 ‘경제활동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베이비부머 중 29.4%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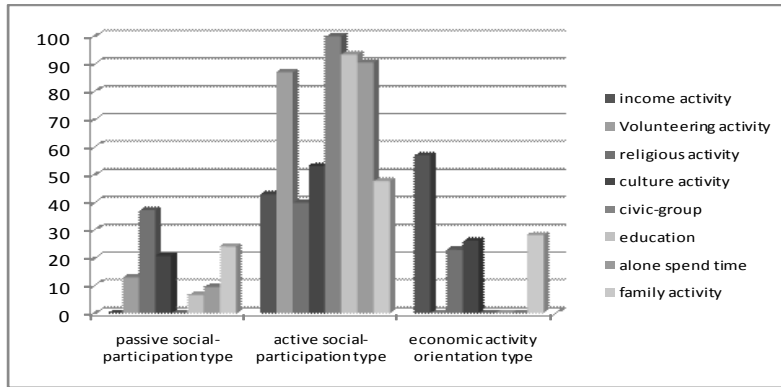
3.2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베이비부머의 현재 사회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출생연도, 학력, 거

[Table 2] Type of Baby Boom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n=1,115)

	income activity	Volunteering activity	religious activity	culture activity	civic-group	education	alone spend time	family activity	total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rticipation (n/%)	
passive social-participation type	0 (0)	28 (13.0)	153 (37.2)	67 (20.7)	0 (0)	13 (6.6)	15 (9.5)	83 (24.1)	410 (36.8)
active social-participation type	246 (42.9)	188 (87.0)	164 (39.9)	172 (53.1)	63 (100.0)	183 (93.4)	143 (90.5)	164 (47.7)	377 (33.8)
economic activity orientation type	328 (57.1)	0 (0)	94 (22.9)	85 (26.2)	0 (0)	0 (0)	0 (0)	97 (28.2)	328 (29.4)
total	574 (100.0)	216 (100.0)	411 (100.0)	324 (100.0)	63 (100.0)	196 (100.0)	158 (100.0)	344 (100.0)	1115 (100.0) 2228* (100.0)

*) Multiple responses



[Fig. 1] Baby Boomers' Social Activity Type

주지, 건강상태, 가장 월소득,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소극적 사회참여형과 활동적 사회참여형에는 여성이 좀 더 많이 속해 있으나, 경제활동중심형에는 남성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는 소극적 사회참여형과 활동적 사회참여형에는 후기베이비부머인 1960-1963년생이 많은 반면, 경제활동중심형에는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비슷했다. 베이비부머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소극적 사회참여형 평균 52.32세, 활동적 사회참여형 평균 52.06세, 경제활동중심형 평균 51.8세로 소극적 사회참여형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소극적 사회참여형에는 고졸이 절반 이상이

고 고졸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베이비부머도 다른 군집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활동적 사회참여형에는 대졸이상이 가장 많고, 경제활동중심형은 고졸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소극적 사회참여형은 특별시/광역시와 시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비슷하고, 활동적 사회참여형은 군 지역에 가장 많았다. 반면, 경제활동 중심형은 시지역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군집에서 건강상태를 '중'이라고 인식하는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은 가운데, 활동적 사회참여형에 속한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소극적 사회참여형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거의 50%에 달하지만 활동적 사회참여형과 경제활동중심형은

[Table 3]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aby Boomers' Social Activity Type

		passive social-participation type	active social-participation type	economic activity orientation type	X ²
Gender (n=1064)	Male	183(45.2)	163(43.4)	185(56.4)	13.815**
	Female	222(54.8)	213(56.6)	143(43.6)	
Birth year ¹⁾ (n=1115)	1955-1959	179(43.7)	149(39.5)	113(54.5)	6.461*
	1960-1963	231(56.3)	228(60.5)	215(55.5)	
Marital Status (n=1109)	With spouse	377(92.6)	341(90.7)	309(94.8)	4.274
	Without spouse	30(7.4)	35(9.3)	17(5.2)	
Academic background(n=1115)	Below High School	80(19.5)	28(7.4)	35(10.7)	52.338***
	High School Graduate	220(53.7)	167(44.3)	157(47.9)	
	College Graduate and Above	110(26.8)	182(48.3)	136(41.5)	
Residential Area (n=1111)	Metropolitan	150(36.9)	94(24.9)	77(23.5)	25.752***
	Si	145(35.7)	132(35.0)	132(40.2)	
	Gun	111(27.3)	151(40.1)	119(32.8)	
Health condition (n=1088)	Bad	42(10.7)	22(6.0)	24(7.4)	12.795*
	Normal	242(61.6)	207(56.1)	198(60.7)	
	Good	109(27.7)	140(37.9)	104(31.9)	
Living Standard (n=1115)	Less than 3 million won	202(49.3)	92(24.4)	100(30.5)	62.413***
	3-5 million won	129(31.5)	149(39.5)	123(37.5)	
	More than 5 million won	79(19.3)	136(36.1)	105(32.0)	

* p<.05, ** p<.01, *** p<.001

1) 유형별 연령평균차이결과: 소극적 사회참여형(평균52.32세)>활동적사회참여형(평균52.06세)>경제활동중심형(평균51.8세)

301만원에서 5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활동적 사회참여형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른 군집에 비해서 많았다.

3.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베이비부머의 현재 사회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활동적 사회참여형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3.38로 가장 높았으며 소극적 사회참여형 3.26, 경제활동중심형 3.16순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소득활동에 집중하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Table 4].

[Table 4]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Baby Boomers' Social Activity Type <n=1097>

	N	M(SD)	F	Duncan
passive social-participation type	401	3.26(.63)	9.756***	b
active social-participation type	370	3.38(.69)		c
economic activity orientation type	326	3.16(.62)		a

***p<.001

4. 논의 및 제언

베이비부머가 거대 노인인구가 될 것이라는 인구학적 전망과 함께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활동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삶의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보다 나은 노후의 삶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본 절에서는 3가지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유형 별로 요약하면서 논의 및 제언을 하겠다.

첫째, 소극적 사회참여형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36.8%가 속한 군집으로, 소득활동이나 시민단체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종교활동이나 가정 내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소수 포함되어 있다. 주로 여성이 많고 후기베이비부머가 많다는 점은 활동적 사회참여형과 유사하나, 학력수준이나 가정소득이 다른 군집에 비해 낮으며, 대도시 거

주자가 많고, 삶의 만족도 수준은 중간정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극적 사회참여형에는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며[41], 여성이 종교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42]와 일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는데, 베이비부머의 낮은 학력수준과 낮은 소득수준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Jung[3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소극적 사회참여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활동이나 시민단체활동과 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활동에 참여는 저조한 반면, 가정 내 활동이나 문화활동, 종교활동과 같이 다소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는 포함되어 있고, 경제활동 중심형에 비해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가정 내 활동과 종교활동은 노년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활동으로 가족이나 정부 다음으로 종교는 노인에게 도구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원[58]이기 때문에 소극적 사회참여형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가 중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가정 내 활동을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의 한 영역으로 봐야 함을 주장한 Yun과 Han[59], Hooyman과 Kiyak[60]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과 가정 내 활동과 같은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과 더불어 이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교기관내의 다양한 취미동아리 및 교육기회 확대와 가정 내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컴퓨터 무상교육을 통해 웹 공간에서의 동아리 활동과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가정 안에서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종교기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이 노인복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활동적 사회참여형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33.8%가 속한 군집으로, 소득활동을 포함하여 시민단체활동, 자원봉사, 교육활동 등 모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베이비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주로 여성이 많고 후기베이비부머가 많다는 점은 소극적 사회참여형과 유사하나 학력이나 가정 내 월평균 소득은 다른 군집에 비해서 가장 높고, 농촌거주자가 가장 많으며, 삶의 만족도 수준 또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학력과 월평균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변수들이다. 학력과 삶의 만족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43-46]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

으로 살펴본 Kim[47]에서 공통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월평균소득이 삶의 질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Jung[48]의 연구 결과와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한 Kim[47]의 연구, 직장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Ka[49]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도 학력과 소득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소극적 사회참여형과 활동적 사회참여형에 모두 여성과 후기 베이비부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군집간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이나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학력과 소득수준에서의 차이로 해석된다. 즉 베이비부머의 경우 아직까지는 중년기로 성별과 연령보다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사회활동참여나 삶의 만족도에서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서 활동적 사회참여형은 근지역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치단체 참여, 친목모임 참여율이 도시 거주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KIHASA[3]의 연구 결과와 같다. 농어촌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부족하여도, 마을회관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많으며, Kwon[51]의 연구 결과와 같이 농촌지역의 가족, 친구, 이웃과의 만남이나 방문을 겸한 친목문화가 활발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활동적 사회참여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활동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생활이 활동적이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으며[37],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적극적인 인생참여와 활기찬 생활이라는 Rowe와 Kahn[50]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해서는 이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교육, 그리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셋째, 경제활동 중심형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29.4%가 속한 군집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는 많으나, 문화활동,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 혼자 시간보내기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와 후기 베이비부머의 분포나 학력의 분포, 가정 내 월소득은 다른 군집의 중간 수준이지만, 다른 군집과는 달리 남성이 많고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장 낮다. 이 군집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이유는 소득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소득활동참여율은 91.4%, 여성

베이비부머는 62.9%로 남성의 소득활동참여가 여성에 비해 높다는 Kim[52]의 결과와 같고, Statistics Korea[53]의 50-59세 남성 고용률 86.7%, 여성 고용률 59.2%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심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사회활동은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즉 선행연구[54-56]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노년기의 소득활동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에 활력을 주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가장으로서 가족의 경제생활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중년기의 소득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제활동 중심형의 베이비부머는 소득활동을 위해 문화활동이나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사회활동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로서 여가활동이 주는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수동적 부양의 대상으로부터 능동적 청년 연장을 향한 페러다임의 혁명을 요구할 만큼 적극적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여가를 즐기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Gwon[57]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일과 여가는 일의 당위성보다는 여가에 대한 열망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활동중심형 베이비부머는 이러한 여가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이상과 현실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이 삶의 만족도 수준을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경제활동중심형 집단과 같이 경제활동 외에 다른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기업 내 여가 단체활동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며,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대학 내 평생교육원, 여러 사회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말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소득활동에 지장이 없는 주말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참여형태는 소극적 사회참여형, 활동적 사회참여형, 경제활동중심형으로 나누어졌고 각 유형별로 다른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활동적 사회참여형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경제활동중심형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중심형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현재 사회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서 어떤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에 하나의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과 지역적 할당을 통한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의 확인과 더불어 가정내 활동이나 종교활동과 같은 소극적 활동 역시 생산적 활동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를 정도나 수준이 아닌 여부로 측정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에 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놓쳤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정도나 수준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 지역적 할당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출생연도별 분포가 고르게 조사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출생연도 특히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로 나누어 표집을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 Y. Kim, The Inter-generation and Intra-generation Differences in Family Ideology among three generations, Sangmyung University, 2004.
- [2] Y. S. An, Analysis of acknowledgement and utilization purpose of silver industry according to lifestyle of baby boom generation. Sangmyung University, 2009.
- [3] KIHASA, Baby Boomer'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IHASA, 2010.
- [4] S. J. Lee, S. H. Hur, Developing Strategy Facilitate Leisure Consumption for the Retiring Baby-boom Generati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1.
- [5] Rohr, M. K., Lang, F. R. "Aging Well Together-A Mini-Review", Gerontology, Vol.55, pp.333-343, 2009. DOI: <http://dx.doi.org/10.1159/000212161>
- [6] L .N. Byon, Y. S. Kim, T. S. Hyun,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 Retirees in Korea and Japa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4, pp.315-344, 2011.
- [7] H. N. Bang, D. G. Shin, S. G. Lee, J. Han, J. K. Kim, I. C. Shin, Study on Korea Baby boomer lifestyle, Korea Labor Institute, 2010.
- [8] K. H. Jung, "Characteristics and Welfare Needs of the Korean Baby Boom Gener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74, pp.5-10, 2010.
- [9] G. U. Jo, J. S. Lee, S. G. Bark, The entry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 policy paradigm shift is needed,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1.
- [10] S. N. Park, G. H. Shim, The status and retirement benefit analysis of the baby boomers.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in Korea, Research report, 1, 2010.
- [11] S. B. Kim, "Consumption Pattern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ge friendly Business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74, pp.28-37, 2011.
- [12] H. N. Kim, Life Style With Consumer Values and Consumer Behaviors of Baby-Boom Generation. Ewhawomen University, 2010.
- [13] Y. H. Kim, S. E. Lim, "A Critical Review on Definition of the Baby-boom years, Labor market shocks,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2, pp.36-59, 2011.
- [14] Y. M. Son, C. H. Kim, Study of Job Creation and Support for Baby boomers, KRIVET, 2011.
- [15] S. J. Woo, Y. S. Lee, "Retirement-related Subjective Expectations and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e Korean Baby-boom Generatio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Vol.31 No.4, pp.855-870, 2011.
- [16] S.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74, pp.11-18, 2010.
- [17] Y. M. Son, C. H. Kim, Study of Job Creation and Support for Baby boomers, KRIVET, 2011.
- [18] J. S. Lee, A Study on Baby Boomers' Retirement Life: Focused on Their Housing Types, Hanyang University, 2007.
- [19] C. H. Kang, C. S. Park, "The Effects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has on the Housing Decision of Baby Boomer", Journal of Korea cadastral information, Vol.11, No.2, pp.99-116, 2009.
- [20] H. Y. Kim, Y. S. Lee, H. G. Yun, "The Study on Housing Characteristics Preferred by Baby boomer After Retirement - Focusing on Apartment's Residents of

- Gangnam Region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21, No.5, pp.83-92, 2010.
- [21] E. Y. Baek, S. H. Joung, "Baby Boomers' Financial Status and the Effects of Housing Equity on Ret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Korea Consumer, Vol.15, No.1, pp.141-160, 2012.
- [22] W. S. Byeon, "The Influenced Factors of Housing after Baby Boomers' Retirement",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8, No.2, pp.238-266, 2012.
- [23] C. J. Park, "Factors Affecting Private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Baby Boomers in Korea", Social Security Research, Vol.27, No.4, pp.327-351, 2011.
- [24] S. H. Jo, J. H. Kim, "Analyses on Personal Financial Attitudes and Behaviors : Comparisons of N-, X-, Baby Boomer-, and War-Generation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7, No.3, pp.123-146, 2011.
- [25] S. H. Nam, "Assets and Implications of Korea Babyboom Generation", Issue & Focus, Vol.115, pp.1-8, 2011.
- [26] J. H. Ha, A Study on the Financial Consumption Behavior of Baby-Boomer and Service Quality in Financial Planning. Ewhawomen University, 2012.
- [27] J. Y. Lee, Pension Benefits on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Korean Baby Boomer Household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 [28] Y. B. Kim, S. H. Lee, "Social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in Seoul and Chuncheon A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Vol.28, No.1, pp.1-18, 2008.
- [29] S. H. Kim, Y.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5, No.4, pp.3-23, 2011.
- [30] J. I. Kim, Y. J. Kim, "Effects of Farming and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at Rural Areas up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5, No.1, pp.251-269, 2010.
- [31] S. S. Shin, S. I.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isure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12, No.3, pp.173-186, 2010.
- [32] M. H.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Ewhawomen University, 2008.
- [33] J. Y. Ju, The impa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s, Korea University, 2011.
- [34] L. N. Byon, Y. S. Kim, T. S. Hyun,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 Retirees in Korea and Japa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31, No.4, pp.315-344, 2011.
- [35] J. I. Kim, Study on baby boomer's desire on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nseo University, 2012.
- [36] H. J. Kang,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ocial integration to whether th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f baby boo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7, pp.429-448, 2012.
- [37] Diener, E., Emmons, R., Larsen, J.,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 pp.71-75, 198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38] G. H. Han, H. J. Choi, K. S. Eun, J. H. Lee, S. H. Joo, J. H. Kim,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Snu Institute on Aging, 2011.
- [39] B. S. Jung, The impact of rural women's leisure activities upon self-esteem feeling and living quality, Chung-ang University, 2007.
- [40] K. H. Lee,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Elderly's Education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0, No.2, 49-77, 2004.
- [41] S. M. Yang, S. R. Hong, S. J. Hong, "Social Activity and Self-Esteem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Vol.14, No.2, pp.145-178, 2004.
- [42] S. C. Le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Older Person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2, No.1, pp.71-91, 2009.
- [43] J. H. Chun, "The Motivation for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A Test of Causal Mode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44] A. R. Moon, The Study on Influence to Lif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in Elderly, Chung-ang University, 2007.
- [45] H. J. Kang, Y. J. Kim,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Focused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0, No.1, pp.71-80, 2009.
- [46] S. H. Kim, S. S. Lee, "A Study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whether the Elderly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or not-",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Vol.9, No.1, pp.309-327, 2009.

- [47] S. R. Kim, A study on Family values,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for Baby-boom generation. Daegu University, 2010.
- [48] S. D. Jung, H. H. Lee, "Life Satisfaction for Baby-boomers: Compare 1998 with 2008",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5, pp.105-131, 2012.
- [49] Y. H. Ka, "The effects of adults' work-family conflicts on satisfaction in the domains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1, No.2, pp.163-186, 2006.
- [50] Rowe, J. W., Kahn, R. L. Successful Ageing. NY: Pantheory House, 1998.
- [51] O. H. Kwon, A comparative study on senior personal satisfaction of life in city and country. Woonkwang university, 2010.
- [52] Y. R. Kim, J. S. Joo,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Baby Boom Gene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53] Statistics Korea, Social Research 2010, Statistics Korea, 2011
- [54] D. B. Kim, E. Y. Park,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Females' Productiv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38, pp.339-358, 2007.
- [55] Y. J. Choi, S. H. Lee, "Elderly Women's Subjective Well-Being Differences participating in Productive Activities: An application of Demand-Control-Support Mode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2, No.1, pp.119-1451, 2007.
- [56] H. S. Yoon, M. J. Lee, Gender, "Residential Areas,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welfare, Vol.58, No.4, pp.197-217, 2006.
- [57] H. J Gwon,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Gangnam University, 2008.
- [58] Cultler, S. J, Hendricks, J, "Age differences in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s: Fact or artifact", Journal of Gerontology, Vol.55, No.2, pp.98-107, 2008.
- [59] S. D. Yun, G. H. Han, "Productiv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Vol.24, No.2, pp.57-77, 2004.
- [60] Hooyman, N. R., Kiyak, H. S,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8th ed, Pearson: US, 2008.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부양, 성공적 노화,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노인의 정신건강

강 현 정(Hyun-Jung Kang)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박사)
- 2011년 7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사회적 배제, 노인의 사회참여, 노후준비도, 베이비붐세대